

## [워크숍 모집요강]

### 1 차

워크숍 제목: **몸으로 체험하는 빛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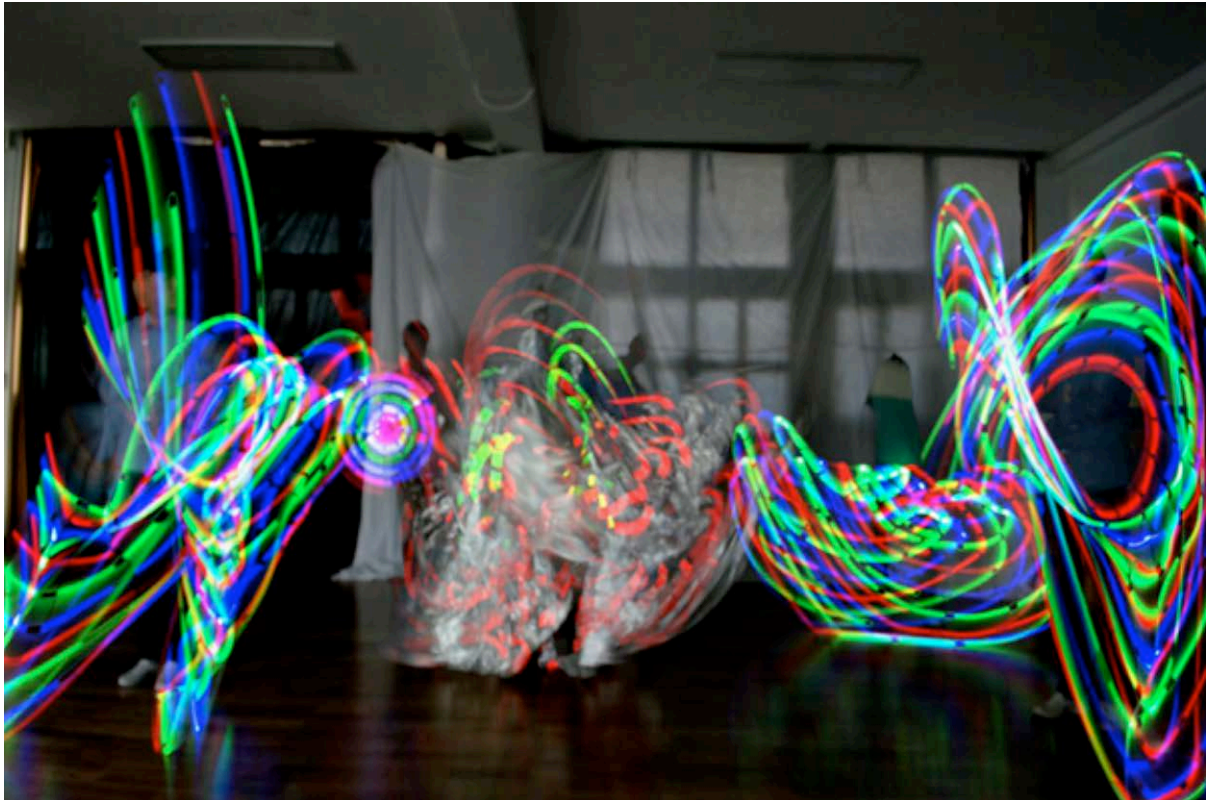
주강사: 진시영 (미디어 아티스트)

보조강사: 강륜희, 선희라, 임새롬

장소: 광주광역시 무등갤러리

시간: 1 월 13 일(월요일) 2-5 시

모집대상: 4 학년 이상 / 10 명



### 진시영 J&C 아트컴퍼니 <몸으로 체험하는 빛 드로잉>

진시영 작가와 J&C 아트컴퍼니는 현대발레와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등 융복합예술공연을 창작하고 기획하는 팀이다. <라이트 드로잉> 은안무가와 예술가가 함께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몸의 움직임을 시각화해보는 융복합 예술 워크숍이다. 라이트 드로잉은 LED 로 만들어진 특수의상을 입고 촬영된 움직임이 MaxMSP 라이트 드로잉 인터랙션을 통해 빛의 늘어짐과 잔상으로 표현되어 회화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고 LED 링 의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움직임을

익혀보고 안무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움직임을 촬영하고, 영상 속 잔상의 모습을 관찰하며 적합한 움직임과 속도, 방향을 고려하며 촬영을 한다. 더불어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해서 흰 케이프 의상을 착용, 의상에 비춰지는 화려한 영상맵핑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움직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몸의 움직임이 시각요소인 빛으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 2차

워크숍 제목: **드로잉 오르골**

주강사: 홍범(설치작가) / 이하은(토탈미술관 에듀케이터)

보조강사: 강륜희, 선희라, 임새롬

장소: 무등갤러리

시간: 1월 14일(화요일) 1-3시

모집대상: 4학년 이상 / 10명



### 홍범 <드로잉 오르골>

홍범은 공간의 인식에 있어서 사람들 고유의 지식과 상상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상이한 기억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의 일련의 작업은 개개인의 직관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간의 심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그런 심적 이미지가 실제 공간에 투영되어,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인식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드로잉 오르골>은 참여자가 제작한 그림을 바탕으로 오르골이라는 장치의 메커니즘을 통해 음악으로 연주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워크숍이다. 기본적인 오르골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오르골에서 작동하는 악보를 소개한다. 더불어 타공을 하는 방법과 그것이 오르골에서 음을 발생시키는 과정, 그리고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워크숍 참여자들과 함께 제작해 최종 작업으로 연결하게 된다.

### 3 차

워크숍 제목: **표정안무장치 만들기**

주강사: 김해인 (미디어 아티스트)

보조강사: 강륜희, 선희라, 임새롬

장소: 광주광역시 무등갤러리

시간: 1 월 16 일(목요일) 2-5 시

모집대상: 4 학년 이상 / 10 명



김해인 <표정안무장치 만들기>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김해인은 디지털 미디어를 비롯,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각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이다. <표정안무장치 만들기>는 작가의 작품중 하나인 '표정 리모컨'이라는 작품과 연계된 워크숍으로 '표정 리모컨' 키트를 활용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얼굴안무장치를 만든다. 워크숍에서 관객은 먼저 무표정인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프린트하게 된다. 프린트된 이미지를 자르고 붙이는 1차과정, 그리고, 서보모터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움직이는 표정을 만들어 보는 2차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평소 익숙했던 모습과 다른 다양한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워크숍을 통해 작가 작품의 메시지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워크숍후 개별 창작물들은 김해인 작가의 작품과 함께 무등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 4 차

워크숍 제목: **디지털로그 사진관**

주강사: 최병석 (조소, 설치작가)

장소: 광주광역시 무등갤러리

시간: 1 월 21 일(화요일) 10-1 시 / 2-5 시

모집대상: 4 학년 이상 / 총 12 명(오전 6 명 / 오후 6 명 )



## **최병석 <디지털 사진관>**

최병석은 입체작업과 설치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일상 속에서 사물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어진 기능에서 벗어나거나 기능을 더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디지털 사진관>은 디지털 시대에 이제는 다소 생소한 사진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진 과정을 경험하는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흑백 일회용 카메라로 팀별로 사진을 찍고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직접 현상한다. 현상된 필름을 디지털 스캔 후, 다시 프린트로 출력해볼 수 있다. 쉽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LED 액정을 통해 편하게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와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워크숍후 개별 창작물들은 최병석 작가의 작품과 함께 무등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 **5차**

워크숍 제목: 사회적 교차지점

주강사: 이조흠(회화, 설치작가)

장소: 광주광역시 무등갤러리

시간: 1 월 23 일(목요일) 2-5 시

모집대상: 4 학년 이상 / 10 명



### 이조흠 <사회적 교차지점>

작가는 개인, 사회 그리고 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회적 교차지점>은 설치 오브제인 장난감을 해킹하여 참여자들의 재미있는 해설을 덧붙인 후, 작가의 설치작업 속에 다시 재설치, 재해석 해보는 워크숍이다. 장난감은 빛 에너지로 자성을 일으키고 그 자성이 추를 밀어내면서 위치 에너지를 발생시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 움직임은 아주 작은 소리를 발생시키고 그 작은 소리는 많은 개체수로 인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만한 소리로 바뀐다. 워크숍 참여자는 자신이 해킹하는 작은 장난감의 개체를 시작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다시 집단 안에 설치함으로 우리가 사회를 이뤄가는 방식을 체험하고, 시각화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워크숍 후 개별 창작물들은 이조흠 작가의 작품과 함께 무등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